

주가·원화·채권 ↑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

원화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 값도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모처럼 '트리플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17.00원 떨어진 1,489.00원으로 장을 마감, 9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환율은 4.00원 오른 1,51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12.50원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증시 강세 반전과 무역수지가 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점, 아시아 공동펀드를 1천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시에서 주가도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약세장에서 벗어나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33.60포인트(3.15%) 급등한 1,099.55

55를 기록, 5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코스닥지수도 8.43포인트(2.30%) 상승한 375.57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7.41포인트(0.70%) 내린 1,058.54로 출발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051.52까지 주저앉았으나 미국발 호재에 매도세가 급격히 약해지자 급반등했다. 전기가스, 운수장비, 증권, 전기전자, 보험업종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의료정밀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다. 채권시장도 외환시장과 증시의 분위기에 반전에 강세를 보였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말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연 4.64%로 장을 마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9포인트 떨어진 연 3.83%,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12포인트 하락한 연 5.15%로 각각 마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3일 전 거래일보다 33.60포인트(3.15%) 오른 1,099.55로 마감한 코스피지수. /연합뉴스

경제 돋보기

금융시장 진정 안심해도 되나

동유럽발 위기... 아직은 '살얼음판'

23일 원·달러 환율이 10일 만에 하락하고 코스피지수가 6일 만에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은 10일째 주식을 팔아치우고 원·엔 환율이 100엔당 1,600원대로 올라서는 등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부도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증시가 반등하는 등 위기 국면으로 치달던 금융시장이 한숨을 돌렸다. 이날 들어 20일째 무역수지가 9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고 2월 한달간 흑자 규모가 2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발표로 달러화 매집세가 다소 완화된 듯하다. 지난 주말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 공동펀드의 규모를 800억 달러에서 1천2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역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를 달랬다. 국내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과 외국인 채권투자의 만기 도래, 동유

日 자금회수 '3월 위기설' 기우 판명엔 빠르게 진정

러프 국가의 경제위기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국내 금융시장의 '3월 위기설'도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화가 엔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는 등 외환시장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엔 환율은 이날 100엔당 1,600.56원을 기록하면서 1991년 고시환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600원대로 상승했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가 지속하면서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상승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아직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년 만기 국채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일 기준 4.51%로 전날보다 0.25%포인트나 뛰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9일(3.26%) 이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17일에는 4%대를 넘어섰고 2주 만에 1.25% 포인트나 상승했다. <당분간 변동성 클 듯>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가치와 주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받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를 근거로 한 3월 위기설이 기우로 판명 나면 원화와 주가 약세가 빠르게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3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와 산업은행이 해외 채권을 예상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그러나 3월 이후에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자금회수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지적이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이거나 불안 심리가 확대된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첨단산업·벤처기업 육성 산실 '자리매김'

광주 테크노파크 개원 10년

개원 10주년을 맞은 광주 테크노파크(사진)가 지역 첨단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4일 오후 2시 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이사장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테크노파크는 이날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 도약을 목표로, 'Global Support, Bright Future'(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선포한다. 테크노파크는 지난 1999년 2월 24일 개원한 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의 대학·기업·연구소 등에 산재한 인력·장비·시설을 한데 모아 공동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힘써 왔다. 테크노파크가 첨단산업 조성을 비롯, 313개에 이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제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면서 입주기업 수도 지난 2001년 17개에서 63개로 증가했고 매출액도 50억원에서 813억원으로, 고용인원은 26명에서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테크노파크는 대학,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펼쳐 296개 과제에 42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특허출원 56건, 특허등록 26건, 기술이전 123건의 성과를 올렸고 7천200여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같은 노력은 2007년 제4회 지역 혁신박람회 지원기관 부문 대통령상, 전국테크노파크 수혜자 만족도 조사 1위, 지역전략사업기확단 평가 1위 등 푸짐한 수상으로 돌아왔다. 광주테크노파크 남현일 원장은 "국제적 역량을 갖춘 수준 높은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발전을 창출해 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허치슨터미널, C&重 파산 신청

2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지난 20일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해 광주지법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계열사인 C&라인의 채권자로 C&중공업은 C&라인의 연대보증을 선 상황이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채무자의 총 자산은 4천473억원에 불과하지만 총 부채가 5천285억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라며 "주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채무자의 국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시장상황에서 매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제10민사부에 배당,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측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개별 판단하나 현재 워크아웃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채권단에 주도권을 쥐었다"고 밝혔다. 메리츠 화재측은 오는 3월13일까지 예정했던 해외M&A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 서구 신청사 시공사 '남광건설' 선정

광주 서구는 내달 착공하는 신청사 시공사로 '남광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평가결과 '남광건설 컨소시엄'은 100점 만점 기준에 점수합계 97.12점을 얻어 제일건설 컨소시엄(95.35점)을 물리쳤다. '남광건설 컨소시엄'은 남광건설, 삼능건설, 남경중합건설이 각각 45%, 45%, 10%의 지분을 갖는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매화에서 남도 멋 찾으세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다음달 16~22일 국내 최대의 매실단지인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제8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한다. 희망자는 '매화의 미(美)' 속에 우리나라의 멋을 주제로, 현장접수를 통해 자유부문(풍경, 접사, 가족 등)과 모델부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촬영 후 27일 오후 6시까지 대회 홈페이지에 부문별로 각 3점씩 총 6점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4월 8일 수상작이 발표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상장과 상품, 금상 2명과 은상 2명, 동상 4명에게는 각각 상금 70만원, 50만원, 30만원과 함께

보해 매화 사진촬영대회 내달 16~22일 해남 농원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보해는 특별상으로 '환상의 커플상'을 마련, 선정된 커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커플링을 증정한다. 보해 관계자는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가 매화를 소재로 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SAFA 사립 제1회 제10회
SAFA
조이케젤 SF-01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젤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042) 365-3200 1688-1471 02-487-8256